

ITU 개혁을 위한 주요 변화

역자 : 김기춘 - ITA 기획본부 국제협력부
출처 : ITU - NEWSROOM/2003. 9. 10



지난 3월 10일 제네바에서는 ITU 개혁의 지침이 될 주요 원칙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하여 “ITU 개혁 자문 위원회 (The Reform Advisory Panel, RAP)” 회의가 개최되었다. ITU 사무총장이 자문기구로서 직접 설립한 RAP는 앞으로 ITU의 사업계획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제안하게 된다. RAP는 각국의 장관 및 고위급 정부 관료를 비롯하여 산업계 최고경영자, 규제정책가, 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넷, 오락, 미디어, 전기통신 및 정보기술 등과 같이 영역에 관계없이 점차 통합되어 가고 있는 산업계로부터 참석한 최고위급 대표들의 견해를 얻는 것이 RAP의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ITU 사무총장은 “급변하는 전기통신 환경 하에서 회원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ITU로 쇄신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RAP의 임무는 ITU 개혁을 위한 명확한 지침과 권고를 제시하는 것이며 의장은 국제상공회의소 사무총장(Maria Livanos Cattai)이 맡고 있다.

RAP는 오늘날 10조US\$에 이르는 산업의 토대를 확립하는 데에 ITU가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는 데에 동의하면서, ITU가 미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그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일치시켰다. RAP 의장 Cattai는

“ITU에 합법적으로 부여된 범세계적 차원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ITU의 역할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덧붙였다.

RAP는 ITU의 변혁을 위해 폭넓게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중에서 조직의 본질, 임무, 한정 자원(주파수 등)의 관리 및 조정에 대한 정책 개발, ITU의 독립적 역할, 텔레콤행사를 포함한 ITU의 작업방법 및 관리방안 등, 총 8개분야에 대한 집중토의가 이루어졌다.

RAP가 승인한 첫 번째 권고는 ITU의 국제적 신뢰성을 유지, 강화할 수 있도록 ITU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진정한 협력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경쟁적 전기통신 시장에서는 규제정책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중재자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이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TU는 이러한 시장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형태의 협력체로 거듭나야 한다.

정책 관련 분야의 토의에서는 ITU 역할 범위가 주요 관심사로서 다루어졌다. ITU 역할 범위는 전기통신 정책 및 규제사항 논의를 위해 국제적으로 초점이 맞춰진 사항이다. 스위스 규제기관, Ofcom의 당국자는 ITU가 규제기관들의 관심사항을 상호 논의할 수 있는 ‘글로벌 포럼’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유럽연합의 관련자는 쉽게 만나 있었으나, US FCC, Anatel 또는 아시아의 규제정책가는 어디서 만나야 하는가”라고 밝혔다.

였다.

이러한 글로벌포럼은 각국의 규제기관들이 모여 주요 규제사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ITU는 각국의 현행 규제정책 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대조하는 싱크탱크(Think-tank) 역할을 담당하고, 필요시 관련 전문영역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한 정보저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 ITU의 세 부문 및 사무국으로 분리되어 결합력의 결여를 초래하고 있는 정책작업은 규제전문센터를 설립하여 한군데로 통합되어야 한다. RAP는 또한 규제 및 정책 관련 문제에 대한 범세계적 촉진자로서의 ITU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ITU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또다른 영역이 분쟁해결 분야이다. 분쟁해결은 복합적이고 어려운 문제이긴 하나 국제 분쟁 해결에 있어 ITU가 정부 및 민간부문에 대해 중립적이고 효과적 메커니즘을 갖는 가장 적절한 위상을 갖고 있다고 RAP는 생각하였다.

인터넷 문제에 대한 ITU의 역할이 ITU 개혁 의제의 근본이다. 그동안 인터넷의 발전은 어떠한 공식적 조직이나 정부규제의 틀 없이 이루어져 왔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형태를 지속시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안이다. 인터넷은 이제 음성전화, 이동통신 및 디지털방송 등 전기통신에 접목되고 있어 ITU는 이러한 인터넷에 관련한 상황에 대하여 분명한 역할을 해야한다.

새로운 멀티미디어 세상에서 “ITU는 반드시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지만 ITU 역시 극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인터넷 소사이어티 회장은 말하였다. 동시에 인터넷 소사이어티는 ITU가 민간부문 또는 다른 표준화기구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국제적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컨텐츠 등과 같은 전문영역 밖의 사안에 대해서 ITU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으나,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간 서로 다른 정책 및 규정들에 대한 중재 등의 영역에 있어서 ITU가 ITU의 권한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에 폭넓은 의견일치를 보았다.

위원회는, ITU 운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하는 사무총장에게 책임이 주어져 있으며 또한 ITU 고위관리의 효율적인 지명 및 승인을 위하여 새로운 처리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위원회의 민간부문 회원은 사무총장이 지역적 균형 및 자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구에서 후보자를 지명하도록 제안하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개혁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결과물에 대한 마감시한을 고정해 놓은 것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권고안을 만들 특별그룹을 지정하도록 제안하였다.

RAP 권고는 4월 초 개최될 ITU 개혁에 대한 ITU 작업반 차기회의에 제출될 것이다. 